

<부활 참인가>
목장교재 목자용 지침서

4/1(주일) 설교 내용

고린도전서 15:3-9

1.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복음서에 기록된 그 분의 다양한 사역들과 십자가 사건에는 관심을 기울이지만, 그에 비해 '부활'에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입니까? 정말 그것은 실제했던 '사실'입니까? 아니면, 추상적인 '의미'입니까?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
자연스럽게 그 분께서 어떤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는지,
또 어떤 인생을 사셨는지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던 과정과 죽음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그다지 깊이 살펴보거나 관심을 기울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설교문을 보았듯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복음은 완성될 수 없었고,
우리의 구원도 없으며,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도 헛것이 됩니다.

이 부활이 나에게서 실제했던 '사실'로 받아들여지는지..
아니면, 그저 신화나 동화의 이야기처럼,
추상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 봄이 왔습니다. 우리에게도 봄과 같이 부활하고 회복되었으면 하는 삶의 영역은 과연 무엇일까요? 내 인생에서 새롭게 회복되었으면 하는 것이 무엇일지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마치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내 인생에도 새롭게 회복되고 소생되기 원하는 영역은 무엇인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은,
어쩌면 목자가 먼저 나눔을 시작해야 자연스럽게 전체적인 나눔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자가 미리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하셨다가
나눔을 먼저 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자님들의 인생에도,
봄과 같이 새로운 회복이 찾아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